

심은경, 日 영화제 최우수신인여우상

“영화 ‘신문기자’서 언어·사상 초월한 연기”

배우 심은경이 일본 영화제에서 최우수신인여우상을 수상했다. 28일 심은경의 소속사 매니지먼트AND에 따르면 심은경은 제29회 영화제 타마 시네마 포럼(TAMA CINEMA FORUM)에서 최우수신인여우상을 수상했다. 영화제 타마 시네마 포럼(TAMA CINEMA FORUM)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영화 팬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에 의한 영화제다. 제29회를 맞이한 이 영화제는 도쿄도 타마시에서 개최되며, 매년 국내 및 해외 화제작을 중심으로 영화 상영, 감독과 배우를 비롯한 여러 게스트를 초청한 토크 이벤트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작품, 감독, 배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화 팬이 수여하는 타마 영화상을 창설해 영화 팬과 영화 제작자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최 측은 “‘신문기자’에서 심은경의 연기력은 언어나 사상을 초월해 보는 이들을 작품 속으로 강렬히 끌어들이며, 처음 출연한 일본 영화에서 선향한 인상을 아로새겼다. 앞으로 그녀의 발

걸음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심은경의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신문기자’는 일본 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모티브로 국가와 저널리즘의 이면을 날카롭게 비판한 영화로 심은경은 극 중 권력의 어둠을 파헤치는 기자 요시오카 에리카를 연기했다. 국내 개봉 전 열린 ‘신문기자’ 감독 및 프로듀서 기자회견에서 카와무라 프로듀서는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다른 일본인 여배우에게는 전혀 출연 제의를 하지 않았다. 심은경 배우의 지적인 면,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그러한 캐릭터에 딱 맞다고 생각해서 캐스팅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심은경은 “저는 지금 마음속이 따뜻한 무언가로 감싸인 듯한 기분으로 가득하다. 왠지 실감이 나지 않고, 아주 신기한 기분마저 든다. 이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보통은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저는 두 번이나 경험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따



름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서 감개 무량하다. 주변의 많은 분께 그저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쁘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

故 구하라, 생전 무대 못본다

녹화 참여 日 후지TV 출연자 명단서 제외...방송 안기로

고(故) 구하라(28)의 생전 무대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생전 구하라는 녹화에 참여한 일본 후지TV 음악정보프로그램 ‘뿔’(tune) 측은 오는 30일 방송을 앞두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 방송한다”고 말했다. 출연자 명단에서도 고인의 이름을 뺐다. 구하라의 현직 매니지먼트사인 프로덕션 오기에 따르면 구하라는 ‘뿔’을 비롯해 일본에서 다수의 프로그램 녹화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구하라는 올해 6월 일본 프로덕션 오기와 계약을 맺고 최근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일본 솔로 데뷔 싱글 ‘미드나이트 퀸’(Midnight Queen)을 발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현지 4개 도시 제프 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화보 촬영 및 방송 프로



그럼, 패션쇼 등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시 구하라는 신변을 비판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 보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인은 경기도 분당 스키아케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뉴스1**

박재정·박보람, 겨울 대표 발라드 탄생 예고

듀엣곡 ‘두 혼자’ 발매

가수 박재정, 박보람이 올 가을을 대표할 발라드를 공개한다. 28일 비오디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재정, 박보람의 듀엣곡 ‘두 혼자’가 이날 오후 6시 발매된다. ‘차세대 명품 발라드’로 입지를 굳히며 남다른 감수성을 드러내 오던 박재정, 댄스와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오가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박보람이 뭉친 ‘두 혼자’는 올 겨울에 잘 어울리는 애절한 발라드 곡이다. 특히 평소 절친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듀엣곡으로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 하다. 절친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두 혼자’는 이별 후 혼자자 된 연인이 답답히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며 서로를 궁금해하고 추억하고 아파하는 애절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아침이 밤이 되어 가듯이 니가 저물어 그걸 보는 일이 참 아파” 등의 감성적이고 애절한 가사가 리스너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아노와 기타, 스트링만으로 이



뤄진 단출한 편곡에 애잔하고 섬세한 박보람의 보컬과 담담하고 슬픈 박재정의 보컬이 녹아든 ‘두 혼자’는 싱어송라이터 심현보가 프로듀싱하는 싱글 프로젝트 ‘프롬 뷰티풀 모멘트’(From Beautiful Moments)의 일환이다. ‘프롬 뷰티풀 모멘트’는 한 곡의 노래와 한 편의 글, 영상이 어우러지는 음악과 이야기의 앙상블을 통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음미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로, 박재정과 박보람이 이번 프로젝트의 두번째 주인공이 됐다. 한편 ‘두 혼자’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발매됐다.

노을, 데뷔 후 첫 지상파 3사 음악방송 1위 후보 ‘롱런’



가수 노을의 신곡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가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롱런하고 있다. 지난 7일에 발매된 노을의 새 싱글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는 46주차 가온차트에서 디

지탈차트,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차트에서 1위를 올라 3관왕을 달성하며 리스너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을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공중파 3사 음악 프로그램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에서 1위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을의 신곡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는 아픈 이별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원 없이 슬퍼하고 후회 없이 털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발라드 곡으로, 이별 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 한 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기억에 상대방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노을은 오는 12월 14일 대구에서 열리는 연말 전국투어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뉴스1**

‘호흡 곤란 증세’ 정미애 “건강 호전...걱정 죄송”

호흡 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갔던 트로트 가수 정미애(37)가 호전된 근황을 전했다. 28일 정미애는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상당히 호전됐습니다”라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노래로 인사드릴게요. 내일 청주에서 만나요”라며 ‘미스트롯’ 청주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을 복귀할 것을 알렸다. 앞서 정미애는 26일 스케줄을 이행하던 중 평소 앓던 천식 증세가 심해져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뒤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됐다. 이후 휴식을 취해온 바 있다. 정미애가 출연 예정인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는 29일 청주에서 시작한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겨울왕국2
2관	블랙머니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겨울왕국2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6관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7관	겨울왕국2
8관	블랙머니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좀비랜드-더블 탭
2관	겨울왕국2, 좀비랜드-더블 탭, 엔젤 해즈 폴른
3관	겨울왕국2
4관	겨울왕국2
5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6관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